

성에 대한 무지가 부른 충격 96.7.8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 하여 맞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친아버지가 여중생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오다 구속되었다. 이번에는 여중생이 교실에서 산통을 겪다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출산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중생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나 가정, 학교가 어린 학생들로 보고 있는 여중생들이 실은 성적 충동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30년 전에 비해 초경연령이 세살이나 낮아져 초등학교에서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 여학생들이 많다. 가정이나 학교가 육체적으로 이미 성인이 된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베풀기보다 애써 외면해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

여중생 학교 출산 사건과 관련하여 안타깝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은 임신 자체가 아니라 출산 때까지 본인말고는 주위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어떤 경로로 임신했는지는 몰라도 만삭이 되는 동안 주위에 의논할 상대도 없이 이 학생이 겪었을 엄청난 고통도 안타까울 뿐더러 이 학생을 포함하여 동급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모두 성에 관해 무지했다는 점이 놀랍다. 자녀를 세밀히 보살피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모

르고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살폈다면 담임교사가 몰랐을 리 없으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면 동급생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 만무하다.

각종 통계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연령이 점점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학생들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에 빠지거나 흡연과 음주 습관을 갖는 경향이 급히 높아지는데, 그 증가율이 고교생보다 다섯배에서 열배까지 앞지른 지 오래다. 더구나 청소년 상담소의 상담내용은 절반 이상이 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 가운데는 임신중절이나 성폭력 성추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제 학교 성교육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당국이나 학교는 컴퓨터, 영상매체, 만화 등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지목하고 이것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를 어둡고 비밀스런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성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청소년 성문제를 대할 때라야만 성적 무지로 인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